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가능성: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를 활용한 단일사례 탐색

강 민 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가 과거 접접 방문 경험과 관련해 겪는 영적 죄책감을 성경적 상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질적 단일사례연구로 탐색하였다. 연구 대상은 말기 대장암을 앓던 70대 기독교인 여성 1인이며, 자료는 1회기 상담 축어록과 사례기록, 연구자의 반성적 메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경 내러티브를 핵심 해석틀로 삼되 기억회상과 심상화를 성경 서사에 종속된 매개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합적 입장을 취하였다. 상담은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를 통해 기억 회상과 구조화된 심상화를 활용하여 죄책감의 정서적 직면과 의미 재구성을 도왔다. 그 결과 내담자의 죄책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신뢰를 다른 대상으로 대체했다는 신앙적 자기정체성 손상(수직적 차원)과, 자신의 불안 때문에 딸의 진로 결정을 무속에 맡겨 그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관계적 책임감(수평적 차원)이 결합된 복합적 영적 고통으로 나타났으며, 베드로 서사는 회개를 강한 감정이 아닌 관계 회복의 과정으로 재이해하게 했다. 또한 심상화는 내담자가 억눌린 분노와 무력감을 언어화하고 용서와 수용의 신앙적 의미를 경험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왔다. 본 사례는 성경 내러티브와 기억회상, 심상화의 통합이 자기정죄 중심 서사를 용서와 평안의 서사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시사한다.

주제어: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 심상화, 말기 암 환자, 영적 죄책감, 성경적 상담

* 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생

I. 여는 글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말기 암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죽음의 임박성 앞에서 삶의 의미, 관계의 정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함께 경험한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의 차원을 넘어, 인간 존재 전체를 흔드는 실존적·영적 위기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Butler, 1963; McClain et al., 2003; 전요섭, 2009).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삶을 회고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인식될수록 정서적으로 중요한 기억이 더 선명하게 회상된다(Butler, 1963; 안미소, 김혜리, 2018; Yalom, 2023). 따라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기억은 현재의 평안을 위협하는 고통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죄책감은 말기 환자의 영적 고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신앙적 맥락에서 죄책감은 단순한 자기비난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관계 단절, 용서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며(Tangney & Dearing, 2002), 특히 말기 환자에게는 구원·용서·회개·심판과 같은 신학적 의미망 안에서 복합적으로 경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 사회의 종교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은 극심한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점집이나 무속적 실천을 하나의 해석 자원으로 찾기도 한다. 최근의 무속은 건강·진로·미래와 같은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 유사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어, 점집 방문은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의미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장평안, 2026).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지닌 내담자에게 이러한 선택은 이후 하나님 신뢰를 대체한 행위로 해석되면서 더 깊은 영적 죄책감과 자기정죄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말기 환자의 죄책감을 다루는 성경적 상담은 행위 자체의 도덕적 판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선택이 발생한 불안의 구조와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재의미화되는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죄책감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말기 환자를 위한 상담은 위로를 넘어 내담자가 회개와 용서, 화해의 가능성을 경험하도록 돕는 방향이어야 한다(강용원, 2009; Collins, 2008; Powlison, 2000). 특히 성경 내러티브는 말기 환자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성경의 회개와 회복 서사는 단순한 교훈이나 윤리적

권면을 넘어, 실패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지고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해석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Gerkin, 2014; McMinn, 2001).

한편 말기 환자의 영적 고통과 죄책감을 다룬 선행연구는 주로 죽음불안과 영적 안녕의 관계(McClain et al., 2003; 전요섭, 2009), 종교적 성향과 죽음 태도(변영인, 2013)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통전적 죽음상담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강용원, 2009)도 보고되었다. 또한 성경 내러티브를 상담에 활용하는 시도는 목회적 돌봄의 해석학적 전통(Gerkin, 2014; McMinn, 2001)과 성경적 상담의 흐름(Powlison, 2000)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말기라는 실존적 한계 상황에서 특정 회개·회복 서사가 내담자의 죄책감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를 실제 상담 축어록 수준에서 분석한 경우가 드물며, 특히 무속 경험과 결부된 죄책감을 다룬 사례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에 주목하여,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를 단일 상담 사례에 적용한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예수를 부인한 후 통곡하였으나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 다시 찾아감을 받고 회복된 베드로의 서사에 주목한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와 후회, 애통, 그리고 관계 회복이라는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말기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데 유의미한 성경적 상담 모델이 될 수 있다(Keener, 2018; Powlison, 2000). 본 연구는 이를 ‘베드로의 회개 모델’로 개념화한다. 여기서 ‘모델’은 표준화된 치료 절차가 아니라, 사례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 틀을 의미하며, ① 실패의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함, ② 그에 대한 정직한 애통, ③ 실패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와의 관계 회복, ④ 자기이해와 삶의 의미의 재구성의 네 국면으로 구성된다.

이 모델을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를 해석 틀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억회상과 심상화라는 상담적 도구와 연결한다. 말기 환자는 생애 말기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경향이 강하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미해결 사건이 현재의 자기이해와 정서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Butler, 1963). 따라서 기억회상과 심상화는 단순한 심리기법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하고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 속에 재배치하도록 돕는 실천적 매개가 될 수 있다(Edwards, 1990; McMinn, 2001).

이상의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말기 암 환자가 경험하는 죄책감의 영적 특성을 구체적 상담 맥락 안에서 탐색한다. 둘째,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가 말기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해석하고 다루는 성경적 상담 자원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본다. 셋째, 기억회상과 심상화를 활용한 상

담 개입이 베드로의 회개 모델과 결합될 때 내담자의 정서와 영적 의미체계에 어떠한 변화 가능성을 열어 주는지 분석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말기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성경적 회복 서사와 연결해 해석하고, 그 상담적 적용 가능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의 죄책감과 영적 회복 경험을 실제적 상담 맥락 안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단일 사례연구로 설계되었다. 사례연구는 연구대상과 그 맥락을 분리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을 실제 장면 속에서 통합적으로 탐구하는데 적절한 접근이며, 특히 상담, 돌봄, 교육과 같이 관계적 상호작용이 핵심이 되는 실천 장면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Merriam & Tisdell, 2016; Yin, 2005). 본 연구가 주목하는 현상은 말기 암 환자가 과거의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영적 죄책감이 성경적 상담 장면 안에서 어떻게 재해석되며,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회개 모델과 기억회상 및 심상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개입의 효과를 일반화하거나 인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기보다, 한 사례 안에서 나타난 상담의 전개 과정과 의미 형성의 구조를 탐색하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던 70대 여성 1인이다. 참여자는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있었으며, 과거 점집을 방문한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죄책감과 영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 이탈 행위라기보다, 질병과 죽음의 위협,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통제 상실의 경험 속에서 의미와 해석을 얻고자 했던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서 무속은 개인의 불안과 현실 문제를 다루는 상담 유사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므로, 참여자의 점집 방문 역시 그러한 불안 대처 방식의 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장평안, 2026). 그러나 참여자는 그 경험을 이후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비추어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에 의존한 행위로 인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영적 고통을 구성하는 핵심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상담은 2025년 3월 서울 소재 딸의 집에서 약 80분 동안 진행되었다. 상담 과정에는 보호자인 딸이 정서적 지지자로 일부 동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자료는 해당 1회기 상담의 축어록(verbatim)과 상담 직후 작성된 사례기록, 그리고 연구자의 반성적 메모로 구성되었다. 본 상담은 애초 연구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목회적 심방

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례이며, 이후 그 자료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로 전환되었다. 내담자의 임종 이후 유족에게 연구의 목적과 비공개·비식별화 원칙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고인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자료를 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은 McLeod(2011)의 질적 상담연구 관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사례연구 목적에 맞추어 상담의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상담 과정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죄책감, 무속 경험의 회상, 회개의 의미화, 그리고 상담자의 개입에 따른 반응 변화를 시간적 흐름 속에서 추적하였다. 이는 단지 무엇이 주제로 등장했는가를 목록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상담자의 질문, 해석, 권면, 심상화 안내가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제시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내담자가 어떠한 정서적·인지적·영적 반응을 보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축어록과 사례기록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단위를 식별하고, 상담자의 개입 유형과 내담자의 반응 양상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자료를 상담의 전개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여, ① 관계 형성과 영적 문제의 탐색, ② 회개 개념의 재구성과 베드로 서사의 도입, ③ 기억회상과 심상화를 통한 정서적 직면, ④ 용서 경험의 보고와 의미 재구성의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단일 사례 안에서 변화의 전환점과 의미의 이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McLeod, 2011).

본 연구는 또한 이 사례가 일반 심리상담이 아니라 성경적 상담의 특수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한다. 본 상담은 심방예배, 기도, 성경 본문의 해석, 회개에 대한 신앙적 권면이 포함된 장면에서 진행되었으며, 상담자는 목회자로서의 위치에서 개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순수한 심리치료 장면으로 환원하지 않고, 성경적 상담, 영적 돌봄, 구조화된 심상화 개입이 결합된 사례로 이해한다. 동시에 상담자가 목회자라는 점, 내담자가 말기 환자라는 점, 보호자인 딸이 일부 동석했다는 점은 상담의 분위기와 반응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석 과정에서도 이러한 맥락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였다(Collins, 2008; McMinn, 2001).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질적연구 신뢰성 기준을 참고하였다. 연구자는 축어록과 사례기록을 반복적으로 대조하며 해석이 실제 자료에 근거하는지를 점검하였고, 상담의 흐름과 발화 맥락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신학적 전제나 목회적 기대가 자료 해석을 과도하게 이끌지 않도록 반성적 메모를 병행하였으며, 상담 과정에서 관찰된 변화 역시 장기적인 치료 효과로 단정하지 않고 해당 회기 안에서 보고된

정서적·영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였다. 이는 사례연구의 강점인 맥락성은 유지하되, 해석의 과잉 일반화를 피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상의 연구 설계와 방법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다음 장에서는 말기 암 환자의 영적 고통과 죄책감,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의 상담적 의미, 그리고 기억회상과 심상화의 활용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본 장에서는 먼저 말기 암 환자의 영적 고통과 죄책감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서사가 왜 성경적 상담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이 서사를 실제 상담 장면에서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기억회상과 심상화의 상담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1) 용어의 정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가 사용하는 ‘성경적 상담’ 개념의 위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권에서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은 일반적으로 Adams 이래 CCEF를 중심으로 전개된 흐름을 지칭하며, 이는 성경의 충분성을 전제로 인간의 문제를 죄와 회개의 관점에서 직면시키고 세속 심리학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두는 입장을 취한다(Powlison, 2000). 반면 McMinn(2001)이나 Collins(2008)로 대표되는 통합적 흐름은 심리학·신학·영성을 상호 보완적 자원으로 보고, 기도·고백·용서와 같은 신앙적 실천을 임상적 개입과 결합하고자 한다. 이 두 흐름은 인간 이해와 방법론에서 상당한 긴장을 내포하며, 따라서 두 진영의 자원을 무비판적으로 병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럼에도 한국의 목회 현장은 영어권의 진영 구분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고유한 조건을 지닌다. 곧 목회자가 심방·예배·기도의 맥락 안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담자 역시 자신의 문제를 신앙의 언어로 가져오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경 내러티브를 상담의 핵심 해석틀로 삼는다는 점에서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되, 기억회상과 심상화와 같은 임상적 매개틀

성경의 진리에 종속시키는 한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합적 입장을 취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적 기법을 일체 배제하는 협의의 누데틱 모델(Adams 계열)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시에 성경의 규범성을 상대화하는 절충적 통합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 연구는 일반은총적 통찰을 “성경이 규범하는 한에서” 제한적·종속적으로 수용하는 파울리슨 계열의 입장(Powlison, 2000)에 서며, 기억회상과 심상화 같은 임상적 매개를 성경의 회복 서사 아래 종속시켜 활용한다. 이러한 위치 설정은 이후 본 연구가 베드로 서사와 심상화를 결합하는 방식의 신학적 근거가 된다.

다만 본 연구가 심상화와 같은 심리치료적 매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학술 분류상 통합주의적 기독교상담으로 읽힐 여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본 연구가 ‘성경적 상담’이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까닭은, 임상적 매개가 독립적 해석 권위를 갖지 않고 성경 본문(특히 요 21장)의 진리에 종속되는 한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성경의 규범성을 상대화하는 절충적 통합과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치 규정은 이후 심상화의 신학적 정당성과 그 한계를 논하는 근거가 된다.

2) 말기 암 환자의 영적 고통과 죄책감

말기 암 환자는 통증, 피로, 기능 저하와 같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죽음의 임박성 앞에서 삶의 의미, 관계의 정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함께 경험한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한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인간 존재 전체를 흔드는 실존적·영적 위기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McClain et al., 2003; Yalom, 2023; 전요섭, 2009).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 과정에서 과거의 미해결 사건, 후회, 관계적 상처, 도덕적 실패 경험이 현재의 의식 속에서 다시 활성화되기도 한다(Butler, 1963). 삶을 회고하는 과정 자체는 생애 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업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이 남아 있는 경우 그 회고는 통합과 수용이 아니라 불안과 후회, 영적 혼란을 증폭시키는 경로가 될 수 있다.

Butler(1963)는 노년기와 생애 후기의 회고 과정을 삶의 통합을 향한 자연스러운 시도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고가 항상 평화롭고 통합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남아 있는 경우, 과거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현재의 평안을 위협하는 고통의 원천이 될 수 있다. 특히 말기 환자에게는 “이제는 돌이킬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단순한 후회를 넘어 실존적 절박성과 결합된 영적 부담으로 심화되기 쉽다 (McClain et al., 2003; 전요섭, 2009).

심리학적으로 죄책감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기준이나 내적 가치에 어긋났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는 정서로 이해된다. 반면 수치심은 특정 행위의 잘못보다 자기 자신 전체의 결함이나 부적절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Tangney & Dearing, 2002). 그러나 신앙적 맥락에서의 죄책감은 단순한 자기비난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 관계 단절, 용서에 대한 갈망과 연결되며 보다 깊은 영적 차원을 띤다.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죄는 단지 규범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이해되기 때문에, 죄책감 역시 단순한 정서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Collins, 2008; McMinn, 2001).

말기 암 환자에게 이러한 죄책감은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질병과 죽음의 현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게 만들며, 이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의 실패는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남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전면화된다(Yalom, 2023). 특히 신앙을 가진 환자의 경우, 죄책감은 단순한 심리적 부담을 넘어 구원, 용서, 회개, 심판과 같은 신학적 의미망 안에서 경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와 두려움은 종교적 성향 및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동일한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안과 수용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더욱 강한 공포와 자기정죄를 경험할 수 있다(변영인, 2013; 전요섭, 2009). 다시 말해, 말기 환자의 영적 고통은 단지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말기 환자의 죄책감은 불안이나 우울의 하위 증상으로 환원되기보다, 독자적인 영적 돌봄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단지 부정적 정서로만 이해하면 회개, 용서, 관계 회복과 같은 신앙적 차원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고, 반대로 영적 문제로만 단순화하면 정서적 상처와 관계적 미해결 과제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말기 환자의 영적 고통은 정서, 관계, 신앙, 삶의 의미가 긴밀히 얽힌 통합적 현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말기 환자를 위한 성경적 상담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를 넘어, 죽음을 앞둔 내담자의 정서와 관계, 신앙과 삶의 의미를 함께 다루는 통전적 돌봄이어야 한다 (강용원, 2009). 곧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 남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Collins, 2008).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 내러티브는 말기 환자의 자기이해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성경적 상담 자원이 될 수 있다.

3) 한국교회의 무속 혼합 현상

말기 환자가 경험하는 영적 죄책감은 추상적 정서에 머무르지 않고, 대개 삶의 구체적 사건과 기억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본 연구 사례에서 내담자의 죄책감은 특히 과거의 무속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나타났으므로, 그의 회개 과정과 영적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무속 혼합 현상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무속은 단순한 전통문화의 잔존 현상이라기보다, 삶의 불안과 위기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능적 요구와 깊이 연결된 종교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길용(2011)은 한국의 샤머니즘이 체계적 교리보다는 당면한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실용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무속은 과학기술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약화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지속적인 수요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속은 단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질병, 재난, 진로, 결혼, 재물, 인간관계와 같은 삶의 구체적 문제를 해석하고 통제하려는 실천적 방식으로 작동해 온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게 드러난다. 목회데이터연구소(2026)의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의 무속 관련 수용도는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다. 조사 결과, “풍수지리”에 대하여 55%, “손없는 날 택일”에 대하여 50%, “점/운세/사주”에 대하여 50%가 “해도 문제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무속적 행위를 신앙과 별개이거나 충돌하지 않는 생활 문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한 이 보고서는 목회자의 82%가 오늘날 기독교 신앙 안에 무속적 요소가 유입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한다(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이러한 결과는 무속이 단지 교회 밖 종교 현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신앙 이해와 실천 방식 내부에도 혼합된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Paul G. Hiebert(1997)의 ‘배제된 중간영역’ 이론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다. Hiebert에 따르면 전통 사회의 세계관은 초월적 실재를 다루는 상층, 경험과 과학의 영역인 하층, 그리고 질병, 재난, 저주, 악한 영, 불행의 원인과 같은 일상적 영적 문제를 다루는 중간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대 서구의

세계관은 종교와 과학만을 강조하는 이원론적 구조 속에서 이 중간영역을 사실상 배제하였고, 그 결과 교회 역시 구원, 내세, 교리, 윤리의 문제는 강조하면서도 성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설명하기 어려운 고난, 영적 불안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Hiebert, 1997).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가 비워 둔 해석의 공백은 무속적 설명과 주술적 실천이 다시 침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의 무속 혼합 현상은 결국 신앙 고백의 차원과 생활 실천의 차원이 분리될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곧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고백하지만, 현실의 위기와 불안을 마주할 때에는 점, 사주, 부적, 택일, 풍수와 같은 방식으로 불안을 관리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단지 개인의 신앙 미성숙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은 성도들의 실존적 질문과 일상적 영적 불안을 교회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특히 기복주의, 영적 권위자의 절대화, 질병과 고난에 대한 단선적 영적 해석은 무속적 사고와 결합되기 쉬운 구조를 형성한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무속 혼합 현상은 단순히 미신적 행위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의 불안, 고통, 질병, 실패, 죽음의 문제를 얼마나 성경적이고 목회적으로 다루어 왔는가를 함께 성찰하는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면 초기 한국 개신교는 이러한 영역을 단순한 미신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현실의 문제에 대응하려는 역동성을 일정 부분 보여 주었다(장남혁, 2007).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속 혼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단지 금지와 정죄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복음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더욱 진지하게 제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교회의 무속 혼합 현상은 신학적 분별, 목회적 돌봄,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실제적 이해가 함께 요청되는 과제이다. 특히 무속이 진로·결혼·자녀 문제와 같은 구체적 삶의 결정에 개입하는 상담 유사 기능을 수행할 때, 그 결과는 개인의 신앙 문제를 넘어 가족 구성원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남길 수 있다. 본 사례의 내담자가 경험한 죄책감 역시 이러한 결과적 차원과 깊이 결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본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내담자의 무속 경험과 그로 인한 영적 죄책감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4)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의 성경적 의미

말기 환자의 죄책감을 다루기 위한 성경적 틀로서 본 연구는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에 주목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 번 부인하였고, 닭 울음 후 예수와 눈이 마주친 뒤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눅 22:61-62).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직면한 영적 애痛的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와 통곡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관계 회복의 길을 여신다(요 21:15-17).

이 서사가 성경적 상담에서 중요한 이유는 죄책감의 치유가 망각이나 자기합리화가 아니라, 실패의 직면, 애痛, 관계 회복, 새로운 사명의 부여라는 과정을 통해 전개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삭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실패는 예수와의 재만남 속에서 최종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는다. 이는 죄책감이 단순히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Powlison, 2000).

베드로의 회개는 단지 많은 눈물이나 격렬한 정서 반응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물론 통곡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핵심은 통곡 자체보다 실패의 현장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다시 서게 되는 데 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실패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명을 새롭게 맡기신다. 따라서 베드로의 회복은 단순한 감정 진정이 아니라 관계적·소명적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Keener, 2018).

이러한 관점은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데 특히 유의미하다. 말기 환자는 과거의 특정 행위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로 경험할 수 있다. 이때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죄책감 속에 있는 내담자는 베드로의 서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단지 파괴된 이야기로만 이해하지 않고, 회복과 은혜가 개입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해석할 가능성을 얻게 된다(Gerkin, 2014).

또한 베드로의 서사는 회개를 지나치게 정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교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어떤 내담자들은 회개를 “충분히 울어야 하는 것”, “강한 고통을 느껴야 진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은 눈물의 강도보다, 실패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관계를 회복하시는 예수의 주도성에 더 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말기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룰 때 정죄를

강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은혜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여는 성경적 상담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Crabb, 2003; Powlison, 2000).

본 연구에서 ‘베드로의 회개 모델’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를 의미한다. 곧, ① 실패의 기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 ② 그 실패에 대한 정직한 애통을 경험하는 것, ③ 실패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것, ④ 그 결과 자기이해와 삶의 의미가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이 모델은 말기 환자의 죄책감을 단순히 완화하는 기법이라기보다, 실패와 은혜를 함께 붙드는 성경적 해석 틀로 이해될 수 있다.

5) 기억회상과 심상화의 성경적 상담적 활용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에게 의미 있는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이야기와 내담자의 실제 기억, 정서, 자기이해가 연결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결의 실천적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이 기억회상과 심상화이다.

기억회상은 생애를 돌아보며 과거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해석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노년기와 말기 상황에서 삶의 회고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회상은 적절히 다루어질 경우 삶의 통합과 의미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Butler, 1963; Webster & Haight, 1995). 특히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나 관계의 상처가 있는 경우, 기억회상은 그 사건을 현재의 의식 속으로 안전하게 가져와 다시 다룰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안미소와 김혜리(2018)는 남은 시간을 제한적으로 인식할 때 정서적으로 중요한 자극의 회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말기 환자를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시간의 유한성 인식이 정서적으로 미해결된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활성화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말기 환자의 기억회상은 단순한 과거 재생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중요한 기억이 더욱 두드러지게 떠오르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말기 환자 상담에서 기억회상은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추억 회상이 아니라 영적 해석의 과정이다.

심상화는 이러한 기억회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서적으로 깊이 있게 돕는 방법이다. 심상화는 내담자가 특정 사건의 시간, 장소, 등장인물, 표정, 말,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떠올리도록 안내함으로써, 설명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정서와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의식하도록 돕는다(Edwards, 1990). 특히 죄책감이나 후회와 관련된 기억은 추상적 언어로 말할 때보다, 구체적인 장면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 그 정서적 핵심이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심상화가 정서적 직면과 의미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는 여러 심리치료 전통에서 설명되어 왔다. 계슈탈트치료의 빈 의자 기법은 내담자가 과거 장면 속 인물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지금-여기에서 언어화하게 함으로써 미해결 과제를 완결하도록 돕는다. 인지치료 계열의 초기기억 심상 재구성(imagery rescripting)은 과거 장면에 고착된 의미와 자기위치를 새롭게 재배열하며(Edwards, 1990), 정서중심치료는 억압된 일차정서(분노, 무력감 등)에 접근하여 그것을 재처리하도록 돕는다. 본 사례에서 내담자가 점쟁이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그 공간을 떠나는 장면을 구성한 것은 이러한 기제들과 상응한다. 본 연구는 이 기제들을 그 자체로 목적화하지 않고, 성경의 회복 서사 안에서 정서가 재해석되도록 종속적으로 활용한다.

다만 심상화는 감정 자극 그 자체를 목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심상화는 반드시 안전한 상담 관계 안에서,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명한 목적 아래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말기 암 환자와 같이 신체적 쇠약과 정서적 민감성이 큰 내담자의 경우, 심상화는 짧고 명료하며 안정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강한 정서 반응이 유발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담자는 개입의 강도와 속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한다(Burton & Watson, 2003).

한편 성경적 상담의 맥락에서 심상화를 사용할 때에는 신학적 분별이 함께 요청된다. 내담자가 눈을 감고 특정 장면 안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떠올리도록 안내하는 방식의 심상화는, 이른바 ‘내적 치유(inner healing)’나 ‘치유기도(theophostic prayer)’ 계열의 시각화 기법과 외형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법은 내담자가 과거의 상처 장면 안에서 예수님을 상상하고 그가 건네는 말을 듣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계시를 주관적 상상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Entwistle(2004)는 이러한 기법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자발적 시각화와 하나님의 문자적 현현에 대한 주장이 경험적·신학적으로 검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곧 심상 속에서 들은 음성을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으로 오인할 위험, 그리고 강렬한 정서 체험이 성경적 진리를 대체할 위험이 제기된다(Entwistle, 2004; Powlison, 2000). 따라서 ‘성경적 상담’을 표방하면서 심상화를 사용하는 시도는 이러한 비판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사용하는 심상화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양자의 차이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계시의 원천에서, 내적치유·치유기도(Theophostic) 계열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새로운 음성이나 장면을 산출하는 반면, 본 연구의 심상화는 이미 성경에 계시된 요한복음 21장의 회복 서사를 정서적으로 전유하도록 돕는다. 둘째, 경험의 지위에서, 전자는 심상 속 음성을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그것을 상담 장면에서 형성된 주관적·관계적 의미화로 해석한다. 셋째, 상담자의 해석에서, 전자는 심상 경험을 객관적 영적 사건으로 격상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해석적 절제를 통해 그러한 격상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Entwistle, 2004; McMinn, 2001).

따라서 본 사례의 심상화는 새로운 계시나 미기록 음성을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미 성경에 계시된 용서와 회복의 진리, 특히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예수의 회복 서사를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전유하도록 돕는 매개로 기능한다. 즉 심상화의 내용은 성경 본문 밖에서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이미 함께 읽고 해석한 베드로 서사의 지평 안에서 형성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심상 안에서 보고한 경험을 객관적으로 검증된 초월적 사건으로 단정하지 않고, 상담 장면 안에서 형성된 주관적·관계적·영적 의미화로 해석한다. 이는 심상 경험을 계시의 차원으로 격상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경험이 내담자에게 지니는 실재적 의미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McMinn, 2001).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러한 구별이 모든 신학적 우려를 완전히 해소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특히 내담자가 심상 안에서 특정한 용서의 음성을 들었다고 보고하는 경우, 그것은 외형상 본문에 없는 새로운 주관적 진술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보고를 새로운 계시로 간주하지 않고, 성경 전반(요일 1:9 등)에 이미 약속된 복음의 진리가 내담자의 신앙 언어로 재진술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인식론적 지위를 상담 장면 내부의 의미화로 엄격히 제한한다. 특히 말기 환자와 같이 취약한 내담자에게 강한 정서를 동반하는 심상화를 적용할 때에는, 상담자의 유도성과 암시성이 내담자의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할 가능성을 항상 동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상화를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의 적용이 아니라, 제한적·탐색적 실천으로 위치시키며, 그 적용의 적절성은 내담자의 신앙 언어, 정서적 안정성,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Burton & Watson, 2003).

성경적 상담의 맥락에서 기억회상과 심상화는 단순한 심리기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고, 그 기억을 신앙의 언어로 새롭게 해석하도록 돕는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McMinn, 2001). 예를 들

어, 내담자가 죄책감을 느끼는 특정 사건을 회상하면서 그 장면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다시 말하게 되면, 그는 단지 “잘못한 나”만이 아니라 “두려웠던 나”, “무력했던 나”, “도움을 구하고 싶었던 나”를 함께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통찰은 자기정죄를 약화시키고 보다 정직하고 입체적인 자기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 지점에서 베드로의 서사와 기억회상 및 심상화는 서로 연결된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관계 회복을 경험하는 구조를 포함한다. 따라서 내담자가 자신의 실패 장면을 기억 속에서 다시 직면하고, 그 기억을 은혜의 관점에서 새롭게 경험하도록 돕는 것은 성경 내러티브와 상담적 기법이 만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내담자의 신앙 언어, 심리적 안정성, 상담자와의 신뢰 관계에 따라 적절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기억회상과 심상화는 성경의 회복 서사가 내담자의 실제 정서 경험 속에 접촉하도록 돕는 유의미한 상담적 매개가 될 수 있다.

요컨대, 기억회상은 과거를 현재의 해석 지평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이며, 심상화는 그 과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서적으로 깊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성경적 상담에서는 이 두 방법이 성경 내러티브와 결합될 때, 내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의 기억”으로 붙들고 있던 사건을 “회개와 용서가 가능한 기억”으로 다시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억회상과 심상화는 본 연구의 사례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다음 장에서는 말기 암 환자의 성경적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회개 모델이 기억회상과 심상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담자의 죄책감과 영적 의미체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었는지를 다음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상담사례 분석

이하 상담기록 인용에서 ‘상’은 상담자, ‘내’는 내담자, ‘딸’은 내담자의 딸을 의미한다. 숫자는 각 화자의 발화 순서를 나타낸다. 따라서 예컨대 ‘(내7)’은 내담자의 일곱 번째 발화, ‘(상18)’은 상담자의 열여덟 번째 발화를 뜻한다. 본 장에 제시된 상담기록은 2025년 3월경에 실시한 1회기 상담 축어록에 근거한다. 1회기 이후 후속 상담을 계획하였으나, 내담자의 상태 악화와 임종으로 인해 추가 회기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의 해석은 단일 회기에서 관찰된 내용에 한정된다.

본 사례는 말기 암 환자가 과거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영적 죄책감을 어떻게 경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이 성경적 상담 장면 안에서 어떠한 해석적·정서적·영적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은 상담의 시간적 흐름과 상호작용 구조를 중심으로, ① 관계 형성과 핵심 문제의 드러남, ② 회개 개념의 재이해와 성경 내러티브의 도입, ③ 기억회상과 심상화를 통한 정서적 직면, ④ 용서 경험의 보고와 자기서사의 재구성, ⑤ 상담적 합의와 한계의 순서로 제시한다.

1) 관계 형성과 영적 문제의 탐색

상담 초반부는 안부 확인과 항암치료 경과에 대한 대화, 그리고 짧은 심방예배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내담자는 말기 암과 항암치료라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방문 자체를 위로와 소망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장면은 본 상담이 일반적인 심리상담 면담과는 구별되는 성경적 상담 장면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본 회기는 예배, 기도, 성경 해석, 정서적 지지가 함께 결합된 영적 돌봄의 성격을 지닌다(Capps, 2018; McMinn, 2001).

상담 초반 내담자는 목회자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항암치료를 끝까지 견디겠다는 의지를 먼저 드러냈다. 이는 자신의 질병을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견뎌야 할 시련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러한 초기 상호작용은 이후 내담자가 보다 민감한 영적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상담자의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이라는 발화는 내담자의 객관적 건강 상태에 대한 사실 진술이라기보다, 투병 중인 내담자를 격려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회적 위로의 화법으로 이해된다. 이후 상담자는 이전 만남에서 언급된 점집 방문 경험을 다시 조심스럽게 확인하였다.

상7: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나서, 저랑 대화 나누었던 것 기억하세요? ... 과거에 무당집에 찾아가셨던 것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내7: “네,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죠. ... 집사일 때 점집에 찾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내가 그 때 안 갔어야 하는데...”

이 발화는 내담자의 고통이 단순한 질병 불안에 그치지 않고, 과거의 특정 행동과 연결된 영적 죄책감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담자는 “집사일 때 점집에

찾아간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단순한 행동의 실수로만 인식하지 않고 신앙인의 자기정체성과 충돌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특정 행위에 대한 후회라면, 수치심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는데(Tangney & Dearing, 2002), 본 사례에서는 두 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담자의 죄책감의 무게중심은 점집 방문이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 방문이 남긴 결과에 놓여 있었다. 후속 대화에서 드러나듯, 내담자는 딸의 진로를 결정하던 시기에 자신의 불안 때문에 무속인을 찾아갔고 그 점괘로 인해 딸의 전공이 바뀌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어리석은 일”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미신 행위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불안이 딸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했다는 관계적 자책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 점은 심상화 국면(내32)에서 분노로 다시 표출되며, 본 사례 죄책감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핵심 주제가 내담자의 자발적 진술만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 상담자의 문제 인식과 개입 방향에 의해 촉진되었다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이후 사례 전체를 해석할 때 상담자의 구조화된 개입과 방향성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된다.

2) 회개 개념의 재구성과 베드로 서사의 도입

내담자는 점집 방문 사건을 “후회스럽다”고 말했으나, 곧이어 보다 중요한 문제를 “회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언어로 표현하였다. 이는 임종을 앞둔 내담자의 고통이 단순한 과거 회상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적절하게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종교적 자기비난으로 확장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9: “집사님이 생각하시는 회개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내9: “글쎄요? 눈물도 흘리고, 죄에 깊은 뉘우침이라든지. 통곡하며 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닐까요?”

이 진술은 내담자가 회개를 관계 회복의 과정이라기보다, 눈물·통곡·강한 감정 같은 특정한 종교적 정서의 형태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내담자의 어려움은 단지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데 있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 “나는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2차적 부담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담자는 이 지점에서 베드로 서사를 도입하였다.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 부인한 뒤 통곡하였고(눅 22:61-62), 이후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 다시 찾아감을 받으며 세 번의 질문 속에서 회복을 경험한다(요 21:15-17). 본 상담에서 이 서사는 실패 경험을 자기정죄의 근거로만 해석하던 내담자가, 관계 회복의 가능성 속에서 자신의 신앙 경험을 다시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 틀로 기능하였다(Gerkin, 2014; Keener, 2018). 이와 관련된 핵심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상11: “베드로는 회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내11: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호숫가로 찾아오셨을 때... 그 때 베드로가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상12: “맞아요. 집사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베드로를, 용서해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지요.”

내12: “목사님, 베드로가 그 때 어떻게 회개했어요?”

상14: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지요.”

이 장면에서 상담자는 회개를 단순한 감정 분출이 아니라, 실패의 현장을 다시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개입은 성경적 상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를 지운 사람이 아니라 실패 후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본 사례에서 내담자는 바로 이러한 서사를 통해 자신의 죄책감을 새롭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장면은 동시에 상당히 지시적이다. 상담자는 회개의 의미를 정서적 통곡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베드로 서사를 현재 내담자의 신앙 맥락과 연결하였다. 다만 이러한 연결은 내담자의 자발적 의미 형성을 돕는 측면과 함께 상담자의 신학적 해석이 강하게 개입하는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장면을 내담자의 자발적 통찰이 형성되기 시작한 과정으로 이해하되, 그 과정에 상담자의 신학적 해석이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음을 함께 고려한다.

한편 베드로 서사를 본 사례에 적용할 때에는 본문 해석과 사례 적용 사이의 간극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를 직접 모른다고 한 명시적 배신인 반면, 내담자의 무속 의존은 불안 속에서 다른 의지처를 찾은 행위로서 죄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유비는 두 행위의 등가성이 아니라, 실패-애통-관계 회복-소명 재부여라는 구조적 상동성에 있다. 이러한 구별을 전제할 때, 베드로 서사는 내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해석 틀로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3) 기억회상과 심상화를 통한 정서적 직면

사례의 전환점은 상담자가 과거 점집 방문 장면을 기억 속에서 다시 떠올리도록 제안하면서 시작된다. 이 개입은 단순한 회상 질문을 넘어, 내담자가 눈을 감고 특정 장면의 인물, 정서, 상호작용을 떠올리며 당시 경험의 의미에 다시 접촉하도록 돕는 구조화된 심상화의 성격을 지닌다.

본 사례의 심상화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었다. (1) 안정화: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안전감을 확보한다(상26). (2) 장면 진입: 시간·공간·등장인물을 환기한다(상28). (3) 정서 활성화: 당시 들었던 말과 분위기를 떠올린다(상30). (4) 미표현 정서의 언어화: 그때 하지 못한 말을 현재 시점에서 표현한다(상32). (5) 행동 완결: 거절하고 그 공간을 떠나는 행동을 심상 안에서 수행한다(상34~35). (6) 신앙적 재의미화: 주님 앞에 자신을 떠올린다(상36~37). (7) 종결: 정서를 안정화하고 경험을 언어로 정리한다. 이러한 단계화는 개입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각 단계가 상담자의 안내에 의해 활성화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다만 본 사례에서의 심상화는 표준화된 치료 프로토콜의 적용이라기보다 성경적 상담 장면에서 맞게 변형된 실천적 사용에 가깝다(Kanter et al., 2010). 상담자는 베드로 서사를 설명한 뒤, 과거의 죄를 기억을 통해 다시 직면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상18: “과거의 사건은 돌이킬 수 없지만, 과거의 기억으로는 돌아갈 수 있지요. ... 그때 집사님이 점집에 가셨던 것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내18: “희미하지만, 기억이 나긴해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눈을 감고 당시 장면과 그때의 마음을 천천히 떠올려 보도록 안내하였고, 내담자는 이에 응하였다(상25~26). 이 장면은 본 사례의 중요한 방법론적

특징을 보여준다. 즉 내담자의 경험은 완전히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 상담자의 안내 속에서 단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언어화되었다. 따라서 이후의 정서 반응과 영적 체험 역시 이 구조화된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심상화가 진행되자 내담자는 점집의 장면과 점쟁이의 얼굴, 말투를 비교적 선명하게 재현하였다. 내담자는 심상 안에서 자신과 형님, 점쟁이가 함께 있는 장면을 비교적 선명하게 재현하였다(상28, 내28). 그가 떠올린 점쟁이의 말은 다음과 같다.

내30: “무당이 이렇게 말하네요. ‘니넨은 머리에 족두리를 쓰고 있구만. 결국 그쪽으로 갈 팔자이구만...’”

이어 내담자는 당시 억눌려 있었던 정서를 급격히 표출하기 시작한다. 점쟁이의 말을 떠올리자 내담자는 “불쾌해요... 억울해 죽겠어요”라며 당시 점쟁이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무력감을 강하게 표출하였다(내31). 상담자가 그때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지금 말로 옮겨 보도록 권하자, 내담자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내32).

내32: “야~ 니가 댜데 우리 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 니가 댜데 감히 내 딸의 길을 결정해!”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야~ 니가 댜데 감히 내 딸의 길을 결정해!”(내32)라는 발화는, 내담자의 죄책감의 핵심이 무속 방문이라는 종교적 일탈 자체가 아니라 딸의 인생 결정을 무속인에게 내어준 것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기존 자기서사에서 내담자는 자신을 “어리석고 잘못된 사람”으로 기억하였으나, 심상화 과정에서는 점쟁이의 권위에 압도당한 무력감, 딸의 진로 앞에서의 절박함, 그리고 그 결과 딸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관계적 책임감이 함께 드러났다. 따라서 내담자의 고통은 수직적 죄책(하나님 신뢰의 대체)과 수평적 죄책(딸의 자율성 침해)이 분리되지 않은 채 결합된 복합 정서로 이해된다. 즉, 내담자의 고통은 단순히 “죄를 지은 나”라는 한 차원의 자기정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안에는 절박함, 무력감, 억울함, 후회가 뒤섞인 복합적 정서가 자리하고 있었다.

상담자는 이어 점쟁이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하고, 나아가 그 장소를 떠나는 행동까지 심상 안에서 수행하도록 이끈다.

상34: “그 장면에서 지금의 집사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십니까?”

내34: “야~ 이 돌팔이야~ 니가 똘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형님 나갑시다. ... 그냥 나갑시다!”

상35: “무당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집사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내35: “무당이 뒷문으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형님 손 붙잡고 무당집을 나왔어요.”

이 장면은 상담학적으로 과거 사건의 정서적 재경험과 자기위치의 재구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내담자는 기존 기억에서 수동적이고 압도된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있었으나, 심상화 과정에서는 당시 표현하지 못했던 거절과 이탈의 의사를 언어화함으로써 보다 능동적인 자기위치를 회복해 갔다. 이는 기억회상이 단순한 사실 재현이 아니라, 과거 사건에 부여된 의미와 정서 구조를 새롭게 배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utler, 1963; Webster & Haight, 1995).

그럼에도 이 장면은 몇 가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첫째, 본 사례의 심상화는 구조화된 안내를 포함하고 있어 상담자의 유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내담자가 말기 암 환자였다는 점에서 강한 정서 유발은 상담적 유익과 함께 부담을 동반했을 수 있다. 셋째, 딸의 동석은 정서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내담자의 자유로운 진술과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넷째, 본 회기는 단일 회기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 재구성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섯째, 말기 환자에게 강한 정서적 고조가 비현실적 신체 회복 기대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내담자는 회기 말미에 “제 병도 다 나은 것 같이 기뻐요”(내40)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영적 안도감의 표현일 수도 있으나 동시에 치유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상담자는 이러한 표현을 신체적 치유의 약속으로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정서적 전환의 한 표현으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과정을 “표준화된 기법의 성공적 적용”으로 일반화하기보다, 곧 죽음을 앞둔 특정한 상담 상황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정서적 직면의 한 사례로 제한하여 해석한다.

4) 용서 경험의 보고와 의미 재구성

심상화의 후반부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과거 장면을 지나온 이후 자신의 신앙 안에서 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표현하도록 도왔다. 이 지점에서 사례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서적 직면에서,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미화하는 국면으로 이동한다. 상담자가 그 장면을 지나 주님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려 보도록 안내하자(상36~37), 내담자는 예수의 현존을 떠올리며 강한 정서 반응을 보였고(내37), 곧이어 용서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보고하였다(내38).

내37: “네~ 네~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짐쟁이 말을 들으려고...”

내38: “저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상담자가 이러한 경험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묻자, 내담자는 처음이라며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다(내40).

내40: “처음이에요. ... 이렇게도 회개가 되는구나... 지금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제 병도 다 나은 것 같이 기뻐요.”

이 장면은 내담자에게 강한 정서적·영적 전환 경험으로 의미화된 것으로 보인다. 회기 말미에 내담자는 “회개했다”, “용서받았다”, “기쁘다”는 언어를 반복하며 이전과 다른 정서 상태를 표현하였다. 내담자가 들었다고 보고한 “용서” 메시지(내38)는, 외형상 본문에 없는 주관적 음성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내적치유·치유기도 기법에 제기된 비판(Entwistle, 2004)이 본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음성을 이미 성경 전반(요일 1:9 등)에 약속된 복음의 진리가 내담자의 신앙 언어로 재진술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지위를 상담 장면 내부에서 형성된 주관적·관계적 의미화로 엄격히 제한한다. 이러한 해석적 절제는 체험의 실재적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검증된 초월적 사건으로 격상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본 회기 안에서 적어도 내담자의 죄책감이 기존의 자기정죄 언어에서 용서와 수용의 언어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Collins, 2008; McMinn,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기 안에서 내담자의 언어와 정서 표현에 일정한 변화가 관

찰되었다. 내담자는 더 이상 점집 방문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신앙적 오점”으로만 말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억으로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본 사례에서 관찰된 핵심 변화는 과거 사건의 객관적 소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자기서사가 자기정죄 중심의 언어에서 용서와 수용의 언어로 재구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다만 본 사례의 용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차원에 집중되었고, 죄책감의 또 다른 축이었던 딸과의 관계 회복, 곧 수평적 차원은 상담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주목할 점은, 그 딸이 바로 이 사건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당사자이자 상담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가 베드로 모델을 통해 회개를 관계 회복의 과정으로 정의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례에서 회복되지 않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딸과의 관계였다. 따라서 본 사례는 용서의 성취를 보여주는 동시에, 수평적 회개가 미처 다루어지지 못한 미완의 회복이라는 긴장을 함께 드러낸다. 이는 결함이라기보다, 단회기 목회 돌봄의 현실적 제약과 수직적 용서로의 빠른 수렴이 빚어낸 구조적 특징으로 이해된다.

3. 본 사례에 대한 해석과 논의

첫째, 본 사례는 말기 암 환자의 영적 고통이 죽음 불안이나 우울 정서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의 특정 사건이 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시 활성화되면서 영적 죄책감과 수치심의 형태로 재경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남은 시간을 제한적으로 인식할 때 정서적으로 중요한 자극의 회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미소와 김혜리(2018)의 연구와도 맞닿아 있다. 즉, 말기 상황에서 시간의 제한성은 과거의 미해결 사건, 특히 죄책감이 결부된 기억을 더욱 두드러지게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내담자의 고통은 점집 방문이라는 행동 자체보다, 두 축의 자기이해와 결합되어 있었다. 하나는 “집사였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신앙적 자기정체성의 손상(수직적 축)이고, 다른 하나는 “내 불안이 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관계적 책임감(수평적 축)이다. 이는 죄책감이 행위 중심 정서라면 수치심은 자기정체성 중심 정서라는 논의(Tangney & Dearing, 2002)와 맞닿아 있으며, 본 사례에서는 두 정서가 수직·수평의 두 차원에 걸쳐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작동하고 있었다.

둘째, 본 사례는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가 성경적 상담의 해석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베드로는 실패한 신앙인이며, 그의 이야기는 실패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본 상담에서 이 서사는 내담자에게 “충분히 울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는 이해에서 벗어나, 실패의 현장을 다시 마주하고 관계를 회복해 가는 과정 자체가 회개일 수 있다는 새로운 틀을 제공하였다. 이는 성경 내러티브가 단지 교훈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내담자의 자기이해를 새롭게 해석하도록 돕는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Gerkin, 2014).

셋째, 기억회상과 심상화는 본 사례에서 정서적 직면과 의미 재구성의 매개로 작동하였다. 심상화 과정에서 내담자는 점쟁이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표출하였고, 이어 예수의 현존을 상상하는 장면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기억회상이 단순한 과거 회고를 넘어, 과거에 고착된 정서와 신앙적 해석을 다시 배열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utler, 1963; Webster & Haight, 1995). 다만 본 사례의 심상화는 상담자의 개입이 비교적 강했고, 목회자의 권위, 내담자의 취약성, 딸의 동성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상담학적 측면에서 본 사례는 중요한 가능성과 함께 분명한 주의점도 드러낸다.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말기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성경적 상담은 단순한 위로 제공을 넘어, 성경 서사와 기억회상을 통해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읽도록 돕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의점의 측면에서 보면, 본 사례에서 상담자의 주도성은 도입부의 문제 확인(상7)부터 회개 의미의 재해석(상12, 상14), 과거 장면으로의 회귀 제안(상18, 상25), 예수의 현존을 찾도록 하는 안내(상36, 상37)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주도성은 임종을 앞둔 목회 돌봄이라는 장면의 특성과 분리되지 않는다. 곧 제한된 시간과 긴급한 영적 필요 앞에서 목회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책임을 지며, 이때의 지시성은 제거해야 할 오염이 아니라 그 돌봄장르를 구성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의 권위, 내담자의 취약성, 암시적 질문이 결합될 때, 내담자의 응답이 상담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회적 권위를 회복을 촉진하는 자원인 동시에 응답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으로 보는 양가적 관점에서, 상담자의 주도성을 변호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으로 다룬다. 그리고 심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서적 고조와 영적 체험을 곧바로 치료효과로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특히 본 사례는 단회기 자료이므로, 회기 안에서 보고된 기쁨과 안도감이 장기적인 영적 통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종합하면, 본 사례는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성경적 상담에서 베드로

의 회개 서사, 기억회상, 구조화된 심상화가 상호작용하며 내담자의 정서와 의미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과정은 상담자의 유도성, 영적 권위의 비대칭, 보호자 동식, 영적 체험 해석의 문제를 함께 포함한다. 따라서 본 사례의 의의는 어떤 기법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데 있기보다, 특정한 성경적 상담의 맥락에서 이러한 개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III. 닫는 글

1. 연구 결과 종합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가 경험하는 영적 죄책감을 성경적 상담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한 여성 암 환자의 상담 사례를 질적 단일 사례연구 방식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 내담자는 과거 점집을 방문했던 사건을 오랫동안 마음에 짊어진 채 살아왔으며, 특히 말기 암이라는 실존적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중대한 실패이자 미해결된 영적 문제로 경험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죄책감이 상담 장면 안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는지를 상담자의 개입, 내담자의 정서 반응, 성경 서사의 적용, 기억회상과 심상화, 용서 경험의 보고라는 흐름 속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본 사례는 말기 암 환자의 죄책감이 단순한 도덕적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신앙적 자기정체성과 결합된 영적 고통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담자의 고통은 “내가 잘못했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집사였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는가”라는 자기이해의 손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는 말기 상황에서 과거의 미해결 문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Butler, 1963). 따라서 말기 환자에 대한 성경적 상담은 현재의 불안이나 우울만을 다루는 접근을 넘어, 삶의 회고 과정에서 다시 떠오르는 영적 상처와 죄책감의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사례는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가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재해석하는 데 유의미한 성경적 상담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내담자는 처음에 회개를 눈물과 통곡을 동반한 강렬한 종교적 정서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그러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회개를 단순한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실패를 직면하고 다시

관계 회복으로 초대받는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해석적 틀로 작용하였다(Gerkin, 2014; Keener, 2018). 이는 성경 내러티브가 단순한 교훈이나 도덕적 권면의 수준을 넘어, 내담자의 자기서사를 새롭게 읽게 하는 성경적 상담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사례는 기억회상과 구조화된 심상화가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서적 직면과 의미 재구성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점집 방문 장면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안내하였고, 내담자는 그 과정에서 점쟁이에 대한 불쾌감, 억울함, 분노, 자기비난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정서 반응은 내담자의 죄책감이 단순한 종교적 죄의식만이 아니라, 절박함과 무력감, 상실감이 복합적으로 얹힌 경험을 드러내었다. 또한 심상화 안에서 내담자가 점쟁이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그 공간을 떠나는 장면을 구성한 것은, 과거 사건 속에서 수동적으로 압도되었던 자기 위치를 새롭게 재배열하는 경험으로 볼 수 있다(Webster & Haight, 1995). 이 점에서 기억회상은 단순히 과거를 재생하는 작업이 아니라, 과거에 고착된 정서와 의미를 다시 다룰 수 있게 하는 상담적 통로가 될 수 있다.

넷째, 본 사례의 후반부에서 내담자는 예수의 현존을 강하게 체험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표현하였다. 학술적으로 이 경험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초월적 사건으로 다루기보다, 상담 장면 안에서 형성된 내담자의 주관적·영적 경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McMinn,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회기 안에서 내담자가 보인 변화는 분명하다. 내담자는 상담 초기에는 점집 방문 사건을 “정말 후회스럽고 어리석은 일”로 반복해 진술하였으나, 회기 후반에는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언어와 기쁨의 정서를 보고하였다. 이는 과거 사건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을 둘러싼 자기서사가 정죄 중심의 구조에서 용서와 수용의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용서에 집중되었으며, 딸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수평적 차원은 상담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사례는 영적 죄책감의 완화 가능성과 더불어, 관계적 회복이 미완으로 남은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 사례가 말기 환자의 영적 죄책감 완화와 영적 안도감 형성의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판단한다.

2. 성경적 상담의 실천과 시사점

한편 본 연구는 성경적 상담의 실천적 차원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말기 환자의 영적 돌봄은 단순히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생애 후반에 다시 활성화되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 내러티브는 내담자의 실존적 상황과 연결될 때, 교리 전달의 차원을 넘어 해석적 치유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기억회상과 심상화는 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억눌린 감정을 드러내고 영적 의미화를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넷째, 상담자는 회개를 단지 더 많이 울고 더 강하게 괴로워하는 경험으로 강화하기보다, 실패를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복음적 관점을 내담자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Collins, 2008). 다섯째, 목회자가 상담자 역할을 겸하는 장면에서는 그 권위가 회복을 촉진하는 자원이자 동시에 내담자의 응답을 특정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는 위험임을 인식하고, 개입의 강도와 암시성을 성찰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기 환자의 정서적 고조가 비현실적 신체 회복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연구의 한계점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단회기 상담 자료에 근거한 단일 사례 분석이므로, 관찰된 변화가 장기적 영적 통합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임종을 앞둔 말기 돌봄에서 단회·일회적 만남은 연구 설계의 결함이라기보다 그 현장의 구조적 실재에 가깝다. 후속 회기가 불가능했던 것은 내담자의 임종이라는 현실 때문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본 자료가 생애 마지막 시점에 실제로 일어난 돌봄의 기록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효과의 입증이 아니라, 그 제약된 조건 안에서 상담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탐색하는 데 있다.

둘째, 본 사례는 상담자의 신학적 해석과 방향 제시가 비교적 강하게 작용한 사례였다. 이러한 주도성의 양가적 성격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으며(II장 3절 참조), 본 사례에서 나타난 변화가 전적으로 내담자의 자생적 통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셋째, 내담자가 말기 암 환자라는 점, 목회자-내담자 관계의 권위 비대칭, 보호자인 딸의 동석은 모두 상담 반응과 체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사례를 곧바로 일반화된 치료 모델이나 표준화된 기법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영적 체험의 해석과 관련해서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내담자가 보고

한 예수의 현존과 용서 경험을 실재적 의미를 지닌 주관적 영적 경험으로 이해하되, 이를 보편적 사실로 단정하거나 재현 가능한 개입 결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4. 본 연구의 기여와 제언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에 관한 후속연구는 단회기 사례를 넘어 다회기 상담과 추적면담을 포함함으로써, 회기 안에서 나타난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통합되거나 변화하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둘째, 베드로 서사 외에도 구약의 다윗을 비롯하여 탕자, 십자가 위 강도 등 신·구약의 다양한 회개와 용서 서사가 말기 환자의 영적 돌봄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신약 인물에 편중되지 않은 균형 있는 성경적 상담 자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억회상과 심상화의 적용에 있어서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성, 신체적 상태, 종교적 배경,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호자 동석이 회상과 정서 표현에 미치는 영향, 특히 본 사례처럼 보호자가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경우 수평적 관계 회복이 상담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후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말기 환자 대상 성경적 상담의 실제적 지침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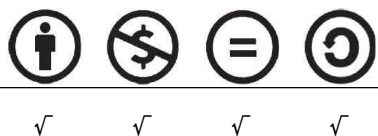
종합하면, 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성경적 상담에서 베드로의 회개와 회복 서사, 기억회상, 구조화된 심상화가 상호작용하며 내담자의 정서와 의미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그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포함하여 한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 본 사례에서 내담자는 점집 방문 사건을 더 이상 오직 자기정죄의 기억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억으로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말기 환자의 영적 돌봄이 죽음을 준비하는 위로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마지막 시점에 다시 떠오르는 죄책감과 실패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하도록 돕는 사역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사례는 한국 사회에서 무속이 단지 전통적 종교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화된 불안과 불확실성을 다루는 상담 유사 구조를 띌 수 있음을 보여준다(장평안, 2026). 이런 점에서 점집 방문은 내담자가 극심한 불안 속에서 의미와 통제를 확보하려 했던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신뢰를 다른 대상에 의해 대체한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영적 죄책감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성경적 상담은 이러한 행동을 단순히 정죄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 배후에 놓인 불안의 구조와 실존적 갈망을 이해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회개와 용서,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내담자를 인도해야 한다.

이 점에서 성경적 상담은 무속이 제공하는 예측과 통제의 언어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무속이 불안을 설명하고 일시적 통제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성경적 상담은 죄와 실패의 기억 속에 갇힌 내담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해석하고, 은혜 안에서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곧 성경적 상담의 핵심은 불안을 제거하는 기술 자체에 있지 않고, 불안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다. 동시에 그러한 개입은 상담자의 유도성, 영적 권위, 내담자의 취약성, 체험 해석의 문제를 동반하므로, 더욱 신중하고 성찰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결국 본 연구의 의의는 특정 기법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있기보다, 말기 암 환자의 영적 죄책감을 다루는 성경적 상담이 어떤 과정 속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했다는 데 있다.

- 논문 투고일: 2026년 05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07월 02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07월 07일



【참고문헌】

- 강용원 (2009). 통전적 기독교 죽음상담을 위한 시론(試論). **복음과 상담**, 12, 9-39.
<https://doi.org/10.17841/jocag.2009.12..9>
- 변영인 (2013). 기독교인의 종교적 성향과 죽음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연구. **복음과 상담**, 21, 61-91. <https://doi.org/10.17841/jocag.2013.21..61>
- 안미소, 김혜리 (2018). 남은 시간 인식이 회상기억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에서의 사 회정서적 선택이론 증거. **한국노년학**, 38(1), 82-102.
- 이길용 (2011). 선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와 사머니즘. **선교신학**, 28, 126-142.
- 장남혁 (2007). 초기 개신교 내한 선교사들의 영적 세계관: 영적 존재에 대한 실체적 인식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19, 261-262.
- 장평안 (2026). 한국 무속신앙의 불안 구조 변화와 목회상담적 함의. **목회와 상담**, 46, 278-307. <https://doi.org/10.23905/kspcc.46..202605.009>
- 전요섭 (2009). 효과적 죽음상담을 위한 죽음 이해. **복음과 상담**, 12, 43-68.
<https://doi.org/10.17841/jocag.2009.12..43>
- Burton, M., & Watson, M. (2003).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상담** (이은 희 역, *Counselling people with cancer*). 학지사. (원전 1998 출판).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1), 65-76. <https://doi.org/10.1080/00332747.1963.11023339>
- Capps, D. (2018). **목회돌봄과 해석학** (김태형 역, *Pastoral care and hermeneutics*). MCI. (원전 1984 출판).
- Collins, G. R. (2008). **New 크리스천 카운슬링**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역, *Christian counseling: A comprehensive guide*, 3rd ed.). 두란노. (원전 2007 출판).
- Crabb, L. J. (2003). **성경적 상담학 개론** (전요섭 역,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아가페. (원전 1977 출판).
- Edwards, D. (1990). Cognitive therapy and the restructuring of early memories through guided imagery.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4(1), 33-50.
- Entwistle, D. N. (2004). Shedding light on Theophostic Ministry 1: Practice

- issu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2(1), 26-34.
- Gerkin, C. V. (2014). **목회적 돌봄의 개론** (유영권 역, *An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은성. (원전 1997 출판).
- Hiebert, P. G. (1997). **인류학적 접근을 통한 선교현장의 문화이해** (김영동, 안영권, 역, *Anthropological reflections on missiological issues*). 조이선교회. (원전 1994 출판).
- Kanter, J. W., Manos, R. C., Bowe, W. M., Baruch, D. E., Busch, A. M., & Rusch, L. C. (2010). What is behavioral activation?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6), 608-620. <https://doi.org/10.1016/j.cpr.2010.04.001>
- Keener, C. S. (2018). **키네 요한복음 주석 2** (이옥용 역, *The Gospel of John: A commentary, Vol. 2*). CLC. (원전 2003 출판).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 McClain, C. S., Rosenfeld, B., & Breitbart, W. (2003).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end-of-life despair in terminally-ill cancer patients. *The Lancet*, 361(9369), 1603-1607. [https://doi.org/10.1016/S0140-6736\(03\)13310-7](https://doi.org/10.1016/S0140-6736(03)13310-7)
- McLeod, J. (2011).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SAGE.
- McMinn, M. R. (2001).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된 기독교 상담** (채규만 역,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두란노. (원전 1996 출판).
- Merriam, S. B., & Tisdell, E. J. (2016).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4th ed.). Jossey-Bass.
- Powlison, D. (2000).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R Publishing.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Guilford Press.
- Webster, J. D., & Haight, B. K. (1995). *The art and science of reminiscing: Theory, research, methods, and applications*. Taylor & Francis.
- Yalom, I. D. (2023). **태양을 직면하기: 알몸의 죽음불안심리와 상담** (임경수 역, *Staring at the sun: Overcoming the terror of death*). 학지사. (원전

2008 출판).

Yin, R. K. (2005). **사례연구 방법** (신경식, 서아영 역,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3rd ed.). 한경사. (원전 2003 출판).

목회데이터연구소 (2026. 5. 6).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성도 4명 중 1명, 몸에 부적 지니고 다녀도 괜찮다. **Numbers, 333**. https://mhdata.or.kr/mailling/Numbers333_260506_Full_Report.pdf

[Abstract]

**The Possibility of Biblical Counseling for Spiritual Guilt
in a Terminal Cancer Patient: A Single-Case Exploration
Using Peter's Narrative of Repentance and Restoration**

Kang, Min Chul*

This study explored, through a qualitative single-case design, how spiritual guilt experienced by a terminal cancer patient in relation to a past visit to a fortune-teller could be understood and addressed within biblical counseling. The participant was a Christian woman in her seventies with terminal colon cancer; data were drawn from a one-session counseling transcript, case records, and the researcher's reflective memos. Using Peter's narrative of repentance and restoration as the central interpretive framework—with reminiscence and structured imagery critically incorporated as means subordinated to that narrative—the counseling facilitated emotional confront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meaning. Finding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guilt was not merely regret about a past act, but a compound spiritual suffering intertwining a damaged religious identity (a vertical dimension) with relational responsibility for having entrusted her daughter's life decisions to a shaman out of her own anxiety (a horizontal dimension). Peter's narrative helped her reinterpret repentance not as intense emotion but as a process of relational restoration, while structured imagery enabled her to verbalize suppressed anger and helplessness and to express the meaning of forgiveness and acceptance. This case suggests that integrating biblical narrative, reminiscence, and imagery may transform a self-condemning narrative into one of forgiveness and peace.

Key words: Peter's narrative of repentance and restoration, guided imagery
terminal cancer patient, spiritual guilt, biblical counseling

*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 Doctoral Student